

**보도일시**

2021. 9. 30.(목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 부서: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
부동산납세과  
자본거래관리과

배포 일자: 2021년 9월 30일

발 표 자	박 재 형	자 산 과 세 국 장
담당과장	임상진 과 장	(044)204-3441
	김길용 과 장	(044)204-3401
	강동훈 과 장	(044)204-3471
담당자	류호균 사무관	(044)204-3457
	박현수 사무관	(044)204-3417
	김희대 사무관	(044)204-3482

## 부모기회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- 주택, 상가빌딩,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-

- (착수 배경) ‘부동산 영끌’, ‘주식열풍’ 등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
  -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,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.
  - 이에,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.
- (조사 대상)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
  - ①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,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,
  - ②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,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,
  - ③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,
  - ④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입니다.
- (향후 계획) 국세청은 앞으로 ‘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’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,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# 1

## 착수 배경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사회통합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
  - 특히,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
  -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수준을 높여왔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‘부동산 영끌’, ‘주식열풍’ 등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부동산,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, 그로 인한 자산격차 및 상실감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.
  -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상가빌딩 소유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, 실상은 ‘부모찬스’를 이용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사례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.
  -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하여 ‘숨긴 소득’을 이용하거나, 부모의 조력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
    -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,
- 정당한 세금 신고·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.

## 2

## 조사대상자 446명

-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주택,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,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,
- 부모가 축적한 부(富)를 대물려 받았음에도 이를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 자녀,
-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,
-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,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프리랜서 등 총 446명입니다.
-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.
-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 ①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

-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, 명의위장·차명계좌 등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후
  - 자력이 부족한 연소자 자녀에게 고가 주택, 상가빌딩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,
  -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어,
  - 연소자 자녀 155명과 관련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동시 선정하였습니다.
-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매출누락, 가공경비 및 명의위장 혐의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.

◇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빼돌려 연소자 자녀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

-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)

◇ OO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인 부친(고액채납자)이 체납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·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

- 해당 업체는 가맹비 및 △△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
-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)

◇ △△ 도·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이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연소자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, 자녀는 해당 자금으로 고가 상가건물 신축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

- 해당 업체는 물품 판매대가를 신고 누락한 혐의
-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)

◇ 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,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

- 자금출처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4 참조)

## ②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72명

-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,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,
  -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연소자 7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
◇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의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, 이후 부친이 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

- 자금출처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5 참조)

### ③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

-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
  -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거나,
  - 자력 없이 주식, 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,
  - 유상 증자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 등
  -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
◇ 실사주인 부친이 체납을 회피하고,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·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, 다시 수차례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 등을 거친 후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

• 증여세(명의신탁)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6 참조)

◇ 법인 임원인 부친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하게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

• 자금출처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7 참조)

◇ 사주인 부친이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, 인수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부여한 혐의

• 증여세 및 주식변동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8 참조)

#### 4] 고액 금전을 증여받는 등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프리랜서 등 22명

-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의 소득·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,
  -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,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춘 혐의자 2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- 특히,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흐름의 쉰 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차명계좌,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.

◇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,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

•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

(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9 참조)

### 3

### 향후 계획

-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‘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’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.
  - 특히,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,
  -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.
- 또한,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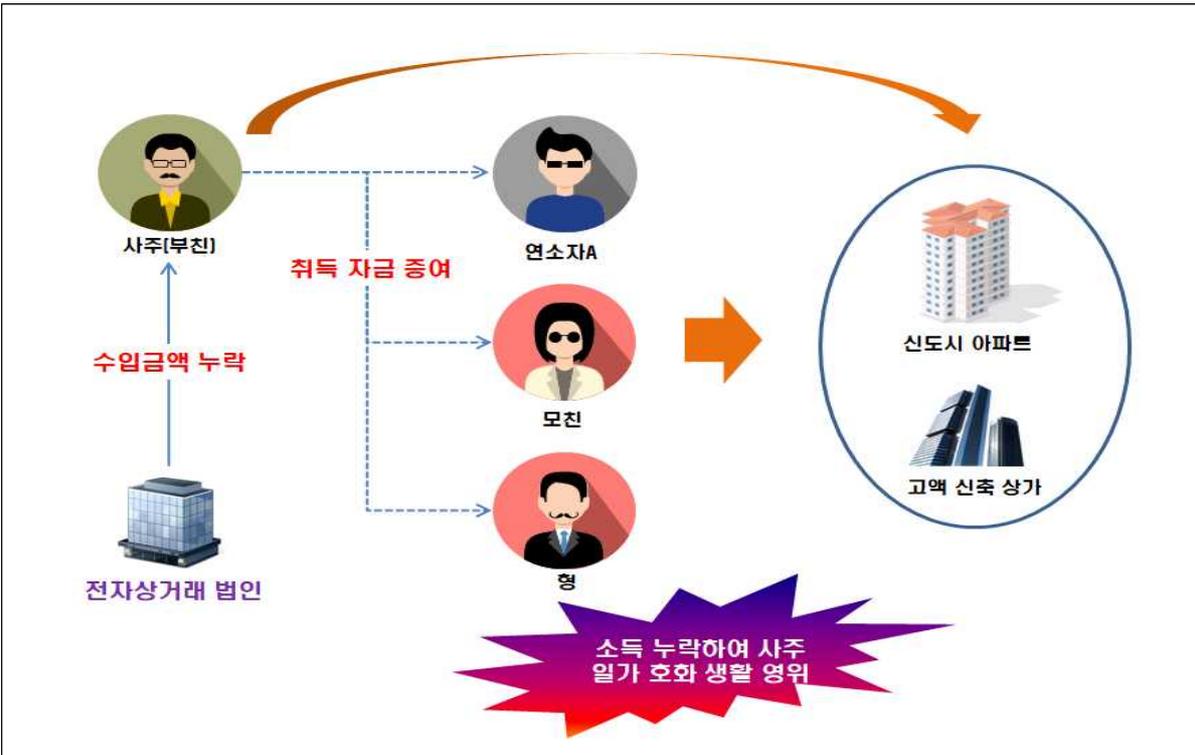
붙 임 :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

**붙임**

**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**

**사례 1**    父는 전자상거래 법인 소득 누락,子是 편법증여로 고액 재산 취득 및 호화 사치 생활

□ **주요 혐의내용**



- 소득 등 자금원천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 및 아파트를 취득한 연소자A의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,
  -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자금을 빼돌려 연소자 자녀A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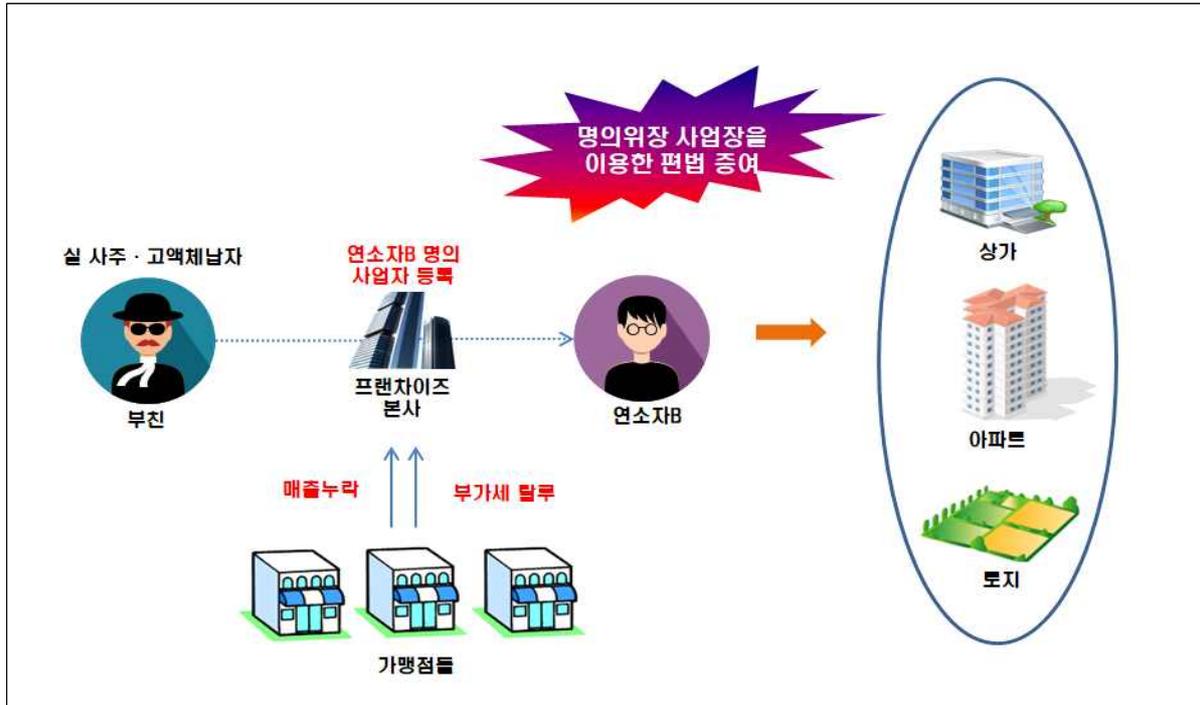
□ **조사 방향**

- 연소자A와 부친의 사업장 및 모친,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동시 조사(자금출처조사 및 법인통합조사) 착수

## 사례 2

실사주(父)가 자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여 모든 재산을 편법 이전

### □ 주요 혐의내용



- 연소자B가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총 0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,
  - □□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인 부친(고액체납자)이 체납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,
  - 해당 업체 또한 가맹비 및 △△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

### □ 조사 방향

- 명의위장 및 소득세 등 탈루 혐의가 있는 부친과 연소자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

### 사례 3

##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자녀 명의 고액 부동산 취득

### □ 주요 혐의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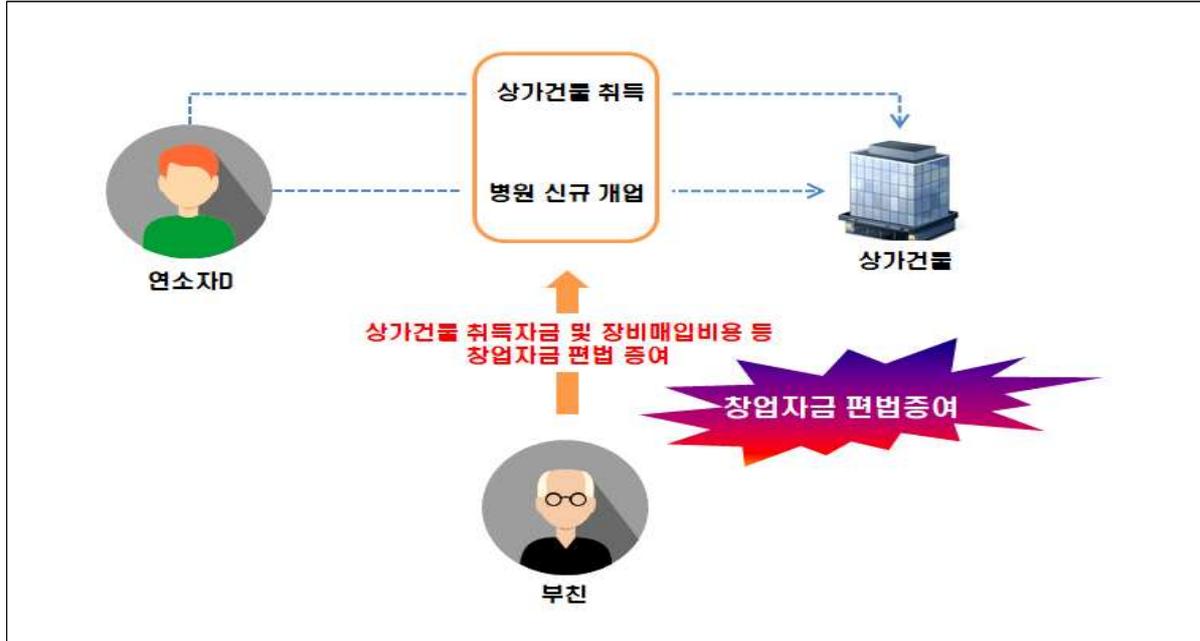
- △△ 도·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이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차명계좌(연소자 자녀C 명의 계좌)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였으며,
  - 연소자 C는 입금된 매출대금을 인출하여 고액 상가건물을 신축하고,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

### □ 조사 방향

- 연소자 C와 부친의 사업장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동시 조사 (자금출처조사 및 법인통합조사) 착수

## 사례 4 부친이 연소자 자녀의 병원 창업자금 편법 증여

### □ 주요 혐의내용



- 사회초년생인 연소자D가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상가 건물에 병원을 개업하여, 연소자D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,
  -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장비 매입비용 등 병원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

### □ 조사 방향

- 연소자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

**사례 5**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여 사업상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고, 부친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혐의

□ 주요 혐의내용



- 연소자 E는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0억 원을 차입하여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,
- 부친은 담보 제공 이후 수년간 대출이자를 대신 상환하고,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매각대금 00억 원으로 자녀 E의 대출 원금 0억 원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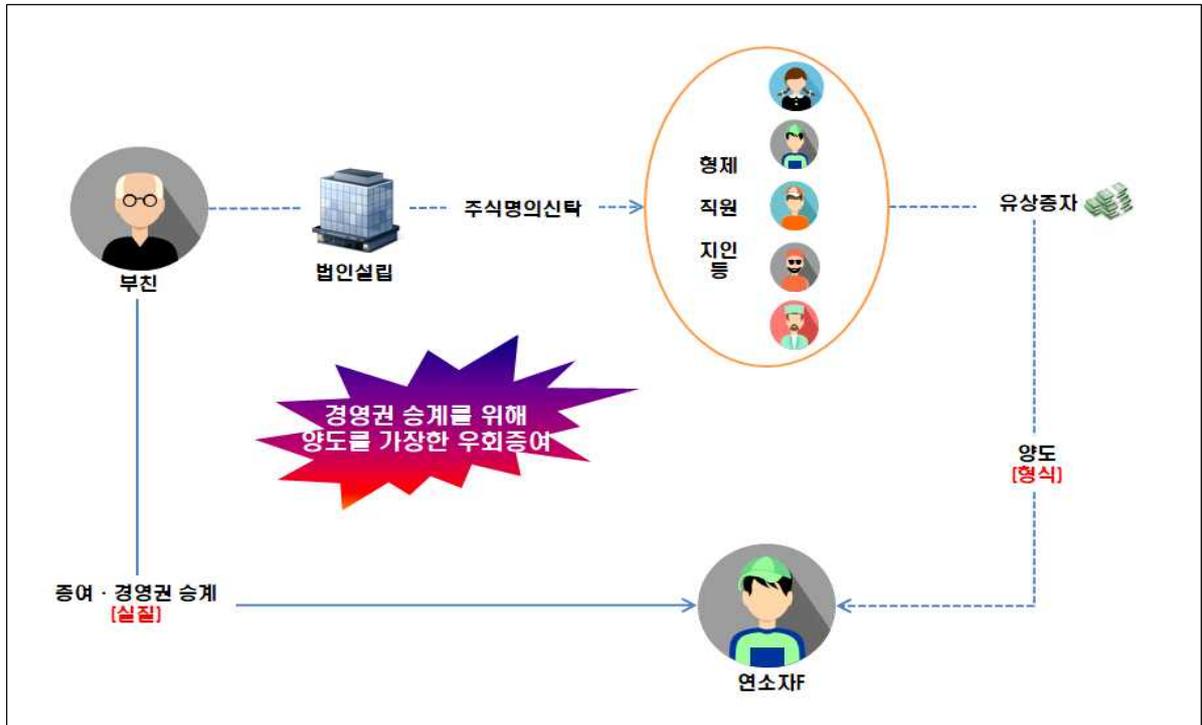
□ 조사 방향

- 연소자 E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

사례 6

사주가 친인척·지인 등을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로 가장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고 세금 탈루

□ 주요 혐의내용



- 사주인 부친은 OO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과 관련된 체납 세금을 회피하고, 경영권을 연소자 자녀F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·지인 등에게 수차례 명의신탁하고,
-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외관상 연소자 자녀F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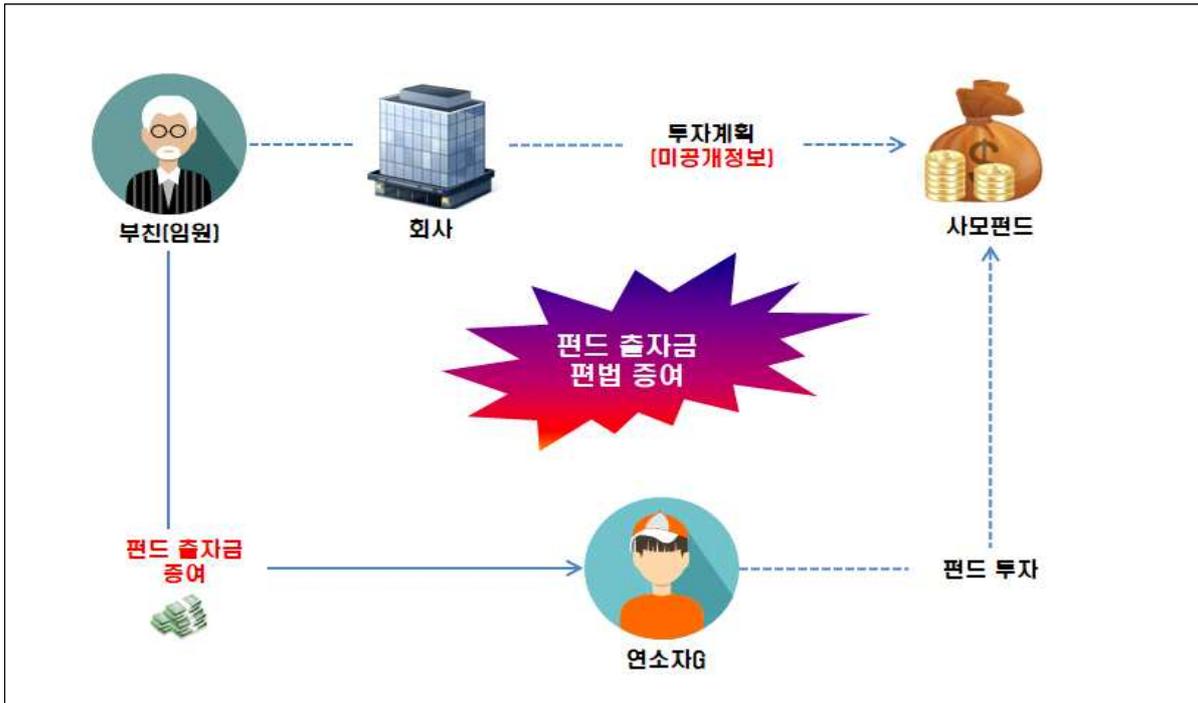
□ 조사 방향

-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 착수

## 사례 7

미공개 펀드 투자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펀드 출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

### □ 주요 혐의내용



- 부친(임원)은 재직 중인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
  - 연소자 자녀 G에게 해당 사모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
- 부동산,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 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자녀의 증여세 회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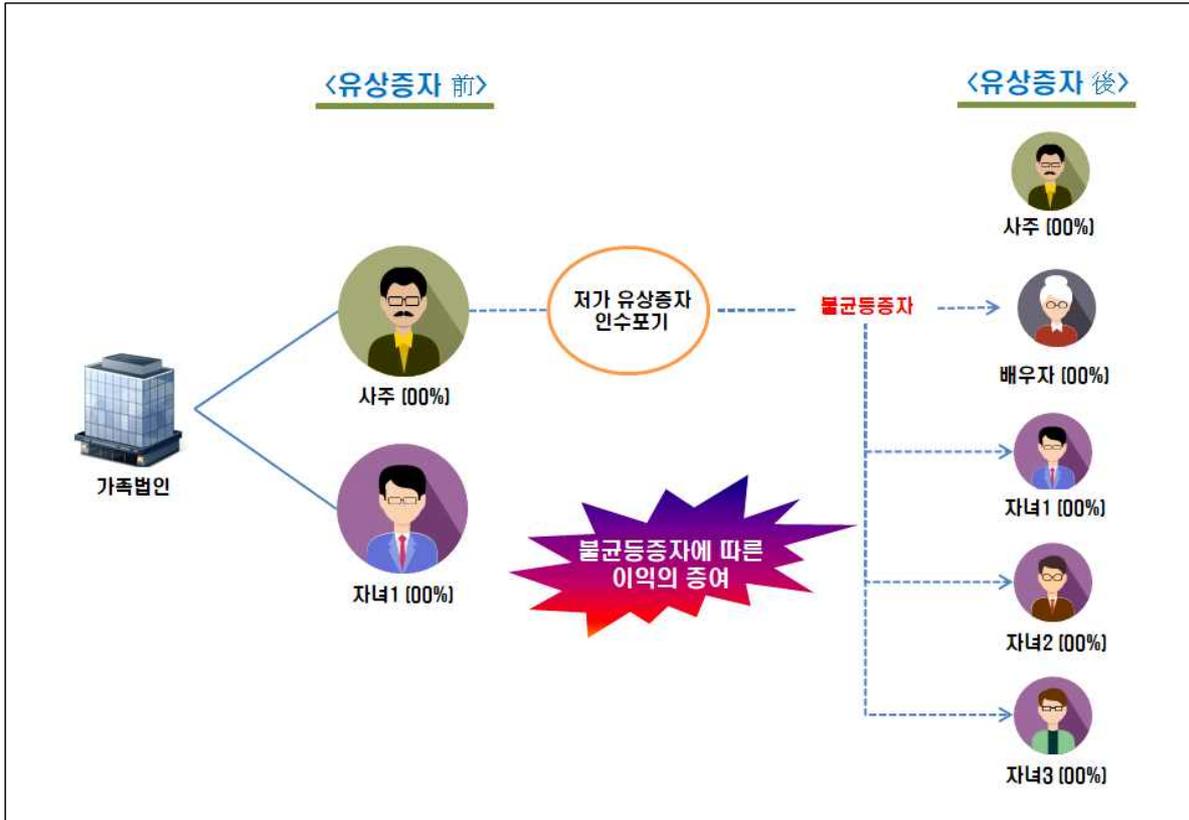
### □ 조사 방향

- 펀드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

사례 8

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, 인수포기한 지분을 자녀 등에게 재배정하여 증여한 혐의

□ 주요 혐의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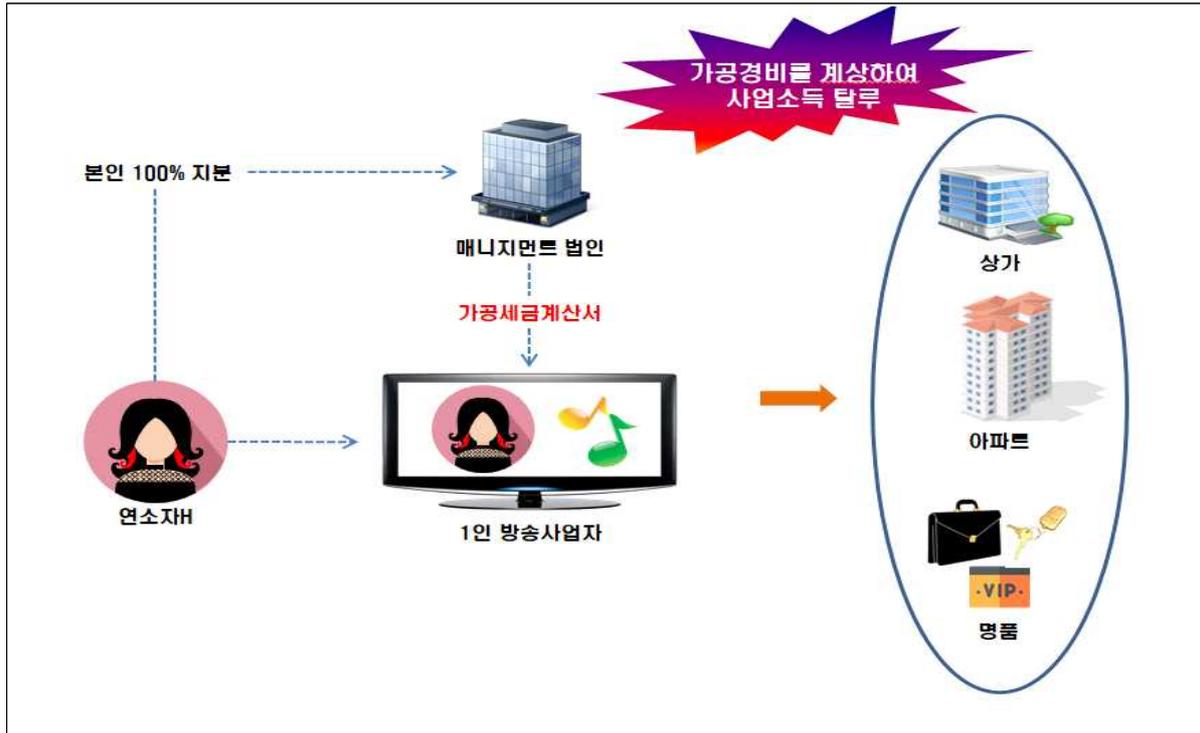
- 사주인 부친은 연소자 자녀 1인과 함께 지분 100%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,
  - 본인이 인수포기한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인수하게 하여 저가발행 이익을 편법적으로 분여한 혐의

□ 조사 방향

-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에 대해 증여세 조사 착수

## 사례 9 1인 방송사업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업소득 탈루

### □ 주요 혐의내용



- 연소자H가 고가 아파트, 상가빌딩 및 명품 등 총 00억 원의 고액 자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응하는 자금 원천을 분석한 결과,
  - 연소자H는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로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0억 원에 달하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며,
  -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0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었음

### □ 조사 방향

- 연소자H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